



뱀해는 어떤 기운일까요?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새 천년의 불꽃놀이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는 저물고 신사년의 날은 밝았습니다.

— 지나간 경진년 용띠해는 밀레니엄에 걸맞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격변의 해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주역의 팔괘중 '간위산'에 해당되어 나무가 많은 산에 비유합니다. 오행으로 치면 동쪽의 나무 기운이 강한 목국입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강한 금운이 닥치면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6.25나 5.16 군사혁명,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도 모두 천간이 경운인 해에 일어났습니다.

지나간 해에도 구제역이란 병마가 몰아쳐 소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영동지방엔 화마의 광풍이 몰아쳐 드넓은 숲이 타버렸지요.

그러나 하면 남북한 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의 만남이 50년 단절의 세월을 건너 뛰어 실현되었습니다. 12월 오슬로에서는 우리 나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세계에 평화노력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이어진 한해가 바로 용띠해의 운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인 신사년 뱀띠해는 어떤 기운이 우리에게 작용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간은 신금으로 들어와 약한 쇠기운으로 목의 작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조금은 하겠지요. 지지는 사로 들어와 더운 불의 기운이 많겠지요. 이것으로 올해의 기후가 바람이 많이 불고 약간 건조하며 무더울 듯 하고 때로는 가뭄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신금은 빛나고 날카로운 성질이고 사회는 열이므로 이 기운을 받으면 사람들은 초조하고 조급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려 따지기를 좋아하며 작은 일에도 열을 받는 한해가 될듯도 싶습니다.

흔히들 역마살이란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올해는 역마가 달리는 해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한 자리에 좌정하지 못하고 공연히 분주하게 여기 저기 움직일 상이고 뱀이 허물을 벗듯이 변화와 새로운 움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문화, 관광,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새로 창업하는 일도 많아질 듯 싶습니다.

그러나 불의 기운은 표현과 나타냄의 속성으로 홍보와 소비는 능하지만 감추고 쌓아 두질 못해서 자칫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실속이 적을 것도 같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발언권도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하기위해 천황의 자손으로 우리를 묶어 두었던 호주제라는 시대 착오적 악법이 존재하는 한 말만 무성하다고 해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존중이 이뤄지지는 않겠지요.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강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폐, 대장이 금에 속하고 심, 소장도 화에 속합니다. 따라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감기,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많을 듯 싶고 홍역도 계속 주의는 해야겠지요. 순위 풍 바람으로 풍질, 안질환,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병이 유행할 염려가 있습니다. 화기운의 극성으로 심열, 화병, 발열 등의 열성질환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 소장으로도 염증이 온다든지 변비나 치질 등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에는 상대적인 기운이나 음식으로 부족한 것은 보하고 넘치면 덜어내는 방법을 쓰면 도움이 되겠지요. 즉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멀리하고 촉촉히 윤기를 주는 물기운과 나무기운을 가까이 하며 야채와 해산물을 자주 먹는 방법은 어떨까요?

건강한 새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